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

철원군 건설산업 활성화 회의

【철원】철원군은 침체된 지역경제와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군과 건설업체가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지난 10일 군청회의실에서 건설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갖고 업체들의 의견

을 들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과 지역 건설산업체의 각종 관급 공사에서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부실설계,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서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철원군은 지역 건설산업

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건설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지역 건설 경기 침체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정국기자 jk2755@kwnews.co.kr